



## 미 증시, 오미크론 및 중국발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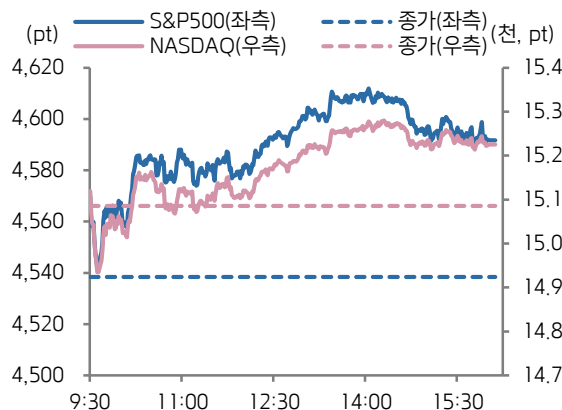
6 일(월)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성장주들의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델타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는 미 전염병 연구소 보고서로 인한 오미크론 우려 완화,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율 인하 등에 힘입어 전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1.9%, S&P500 1.2%, 나스닥 +0.9%, 러셀 2000 +2.1%).

업종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산업재(+1.6%), 경기소비재(+1.6%), 유틸리티(+1.5%)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전 거래일 1.9% 하락한 나스닥은 애플(+2.2%), 메타(+3.6%) 등 대형 기술주들의 저가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0.9% 반등. 보잉(+3.7%), 유나이티드 에어라인(+8.3%) 등 항공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다우 항공 섹터 지수는 5.5% 상승.

엔비디아(-2.1%)는 ARM 인수딜이 미국 FTC 의 제소가 지속적인 부담요인이었고, 루시드(-5.1%)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처치할 SPAC 상장 과정 관련 조사 착수 소식에 의해 하락. 하지만 개장 전 15% 하락에서 낙폭 축소. 한편 알리바바(+10.4%), 디디(+9.9%), 텐센트 뮤직(+2.2%) 등 미국 상장 중국 ADR 들은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율 0.5%p 인하 소식에 힘입어 상승, MSCI 중국 ETF 는 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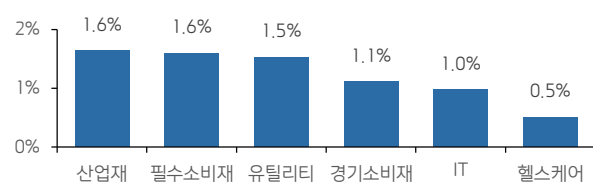
오전 공개된 컨퍼런스보드의 고용동향지수는 전월대비 개선세(113.03→114.49pt)를 보였지만, 유럽의 12 월 섀프스 투자자 신뢰지수(18.3→13.5pt)와 독일 10 월 공장수주(MoM -6.9%, 예상 -0.5%) 부진하는 등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제적 여파가 확인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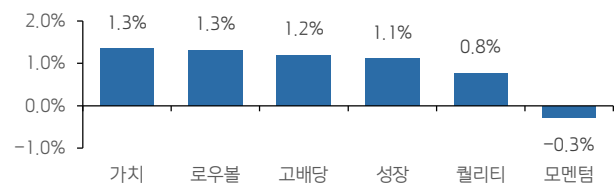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91.67	+1.17%	USD/KRW	1,182.60	+0.22%
NASDAQ	15,225.15	+0.93%	달러 지수	96.30	+0.19%
다우	35,227.03	+1.87%	EUR/USD	1.13	-0.27%
VIX	27.24	-11.18%	USD/CNH	6.38	+0%
러셀 2000	2,203.48	+2.05%	USD/JPY	113.50	+0.62%
필라. 반도체	3,800.07	-0.12%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6,327.63	+2.26%	국고채 3년	1.867	-3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2.215	-2bp
Eurostoxx50	4,137.11	+1.4%	미국 국채 2년	0.631	+4.4bp
MSCI 전세계 지수	724.18	-0.81%	미국 국채 10년	1.436	+9.3bp
MSCI DM 지수	3,086.44	-0.79%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1,224.64	-0.93%	WTI	69.95	+5.57%
MSCI 한국 ETF	79.78	+1.39%	금	1779.4	-0.2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1.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전일 저녁 인민은행의 50bp 기준을 인하 이후 금일 중국 및 홍콩 주식시장 변화 2. 전거래일 재차 금락세를 연출했던 기존 주도 테마주(NFT, 메타버스 등)의 주가 변화 3.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오미크론 확진자는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치명률 등 관련 정보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지만, 초기 코로나 혹은 델타 변이 만큼의 심각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에 있는 모습. 또 백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달리, 현재는 인류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주어진 상황. 전면 봉쇄조치 시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의 경제 및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존 당사의 전망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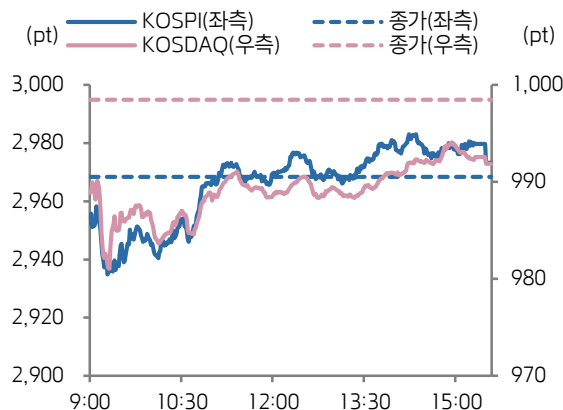
금주부터 12 월 FOMC 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연준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 오미크론 관련 정보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접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 요인. 지난 11 월 FOMC 이후 한동안 테이퍼링 가속화를 대비하고 있었던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에게는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단기적인 정책 혼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오미크론으로 경제가 안좋아지는데 연준 긴축은 대형 악재다" 등).

그러나 오미크론이 공급난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거나, 경제 및 고용시장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이상 연준 입장에서는 기존 경로대로 통화정책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즉, 최근 연준의 스탠스는 과도한 때파로 돌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경계할 필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긴 하나, 인민은행의 50bp 기준을 인하 등 중국 정부에서 이들 그룹의 디폴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한동안 악재의 중심에 있었던 헝다 그룹 디폴트 우려는 향후 증시에서 재료 소멸 인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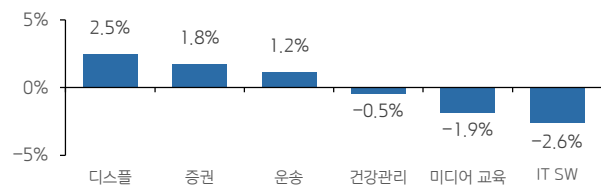
금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코스피의 경우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최근 4 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단기 차익실현 압력은 존재.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글로벌 주요 IB 들의 긍정적인 시각 변화, 하반기 이후 주요국 증시 대비 지나쳤던 소외 현상 해소 기대감 확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전망 등을 고려하면 전기전자 포함 대형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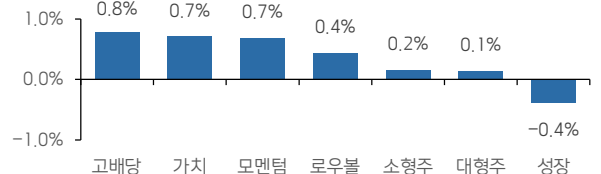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